

유아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척도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for
Early Children's Mothers

최진원(Jin-Won Choi)¹⁾

ABSTRACT

The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dimensionality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was aimed at establishing the construct validity regarding the instrument of assessing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nstrument for assessing psychological well-being was developed with 9 variables(sense of control, sense of achievement, sense of confidence, sense of acceptance, sense of intimacy, sense of assistance, sense of immersion, sense of hope, and sense of satisfaction) in 3 dimensions(sense of competency, sense of relation, and sense of improvement) with 4 rating scales of 102 items.

After the scale development, the estimates of reliability for the 9-variable scales were Cronbach's $\alpha = .71 \sim .90$.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scales,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Franklin, 1996) and Psychological Well-Being(Ryff & Keyes, 1995) was $.21 \sim .25$.

The subjects were divided two groups by the score of the Mother's sens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group has higher score in Mother's sense of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the higher score of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t=3.24, p=.002$)

Key Words :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양육 책임감(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척도개발(scale development).

I. 서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의 불행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Diener, 1984) 1970년대 이후 객관적 지표에 대한 대안으로 삶

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물질적 풍요와 번영만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소득이나 경제성장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생활에 대한 복지 향상과

¹⁾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n-Won Choi,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eju tourism college, Jeju do 695-902, Korea E-mail : i_jowa@freechal.com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로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 심리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Bubloz, & Whiren, 1984).

심리적 복지감이란(psychological well-being), 개인의 생활전반 또는 인생전반에 대해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Veenhoven, 1991)를 말하며, 개인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는 구별되는 개인의 내면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최진원, 2001). 즉,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스트레스 개념과는 별개로 부정적 정서에 접근하는 사후처방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긍정적 정서에 주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서정성, 2004; 이랑, 2003; 김진숙, 2003; 김혜진, 2003; 진미정, 1993),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획득함으로써 높은 긴장감을 갖게 된다(Marks, 1977). 일부 선행연구(김명자, 박성연, 1989)들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거나 어머니 역할에 한정시켜 다룬바 있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할 때 보다 중립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으로 접근해야한다(김명자, 1997)는 점에 동의하고 어머니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다루어온 부부관계나 결혼생활만족도와는 별개로 이혼이나 주말부부 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도 자녀양육만을 전담하는 주부에서 벗어나 일하는 어머니의 증가로 인해 결혼생활 만족정도 보다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Watson과 Clark(1984)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서로 독립적이며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가 더욱 적응적인 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변인을 살펴보면, Lawton(1972)는 열망, 결심과 용기, 바람의 성취도, 목표 간의 일치도, 긍정적인 자아개념, 기분상태를 측정하였으며, Andrews(1976)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건강, 경제상태, 주거상태를 측정하였다. 또한 Duphy(1977)는 불안, 우울, 일반적 건강, 안녕, 자아조절감, 생동감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Ryff(1989)는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환경적 지배력, 자율성을 통해 측정하였고, Maloney(1990)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그리고 정상적 상태를 통해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였다(최진원 외, 2002).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시된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복지감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개인차원, 환경차원, 시간차원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개인은 환경내에 존재하며 성장·발달하는 개인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심리적복지감이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유형을 구별하기 보다 스스로 개인이 환경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유능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차원에서 물질적 환경보다는 인적환경에 주목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인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친밀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발달하는 개인은 변화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지각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향상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근거해 각 차원은 각 3개씩의 하위 영역을 두어 9개 영역을 구성하였다. 유기체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거나 적응할 때

생존하며 개인의 무력감이나 우울감또는 계속되는 실패는 좌절감을 갖게 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유능감을 선정하였다. 유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주고, 이는 다시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쳐 대응전략을 최적화하므로, 능력이 해석되는 방식은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한다(McLanhan & Adams, 1989).

다음으로, 개인은 다른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를 깊이 있게 맺을 때 심리적 복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대감을 선정하였다. 유대감은 대인간 교류적 측면으로서 관계를 통해 지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개인에게 필요한 정서와 정보에 대한 피드백이 충족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한다(Sarason, Sarson & Sherin, 1986).

끝으로,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는 인간은 개인이 가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하므로 향상감을 선정하였다. 향상감은 욕구의 충족이나 바라던 바가 이루어 졌을 때, 또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지각함으로써 미래를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준거에 의해 나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한다(Ipsen, 1978; Emmons & Diener, 1985).

그러므로 개인적 측면의 유능감과 인간관계에서의 유대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향상감의 3가지 차원을 전제하고 이와 관련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능감이란, 개인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당면한 문제를 성취해내고, 성취결과를 자신감을 갖게 하

므로 유능감 차원을 통제감, 성취감, 자신감 영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통제감은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의 주 동기요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Lefcourt, 1976). 통제감은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느끼며, 자신에게 통제소재를 둬으로써 결과에 책임을 가지고 긍정적인 유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즉, 내적 통제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외적 통제신념을 지닌 사람보다 신체적,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추구하고 심리적 복지감과 연관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낸다(Larson, 1978; Adler, 1980; Myers & Diener, 1995).

둘째, 성취감은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그 활동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스스로 통제한다는 신념을 통해 수행동기가 유발되면 그것을 성취하는데 정력을 쏟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공한 경험은 이로 인해 환경을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 받게 하는데 이것이 복지감에 영향을 준다(Elliot & Sheldon, 1997).

성취감이 낮은 사람은 목표달성에 실패함으로써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하게 되고 회피목표를 설정하며 낮은 자존감, 개인의 통제력, 삶의 만족 등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저하시킨다(Emmons, 1996). 반면, 성취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 설정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므로, 성취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더 많이 염려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향상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즉, 어떤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취하려는 경향은 과제에 대한 인지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나, 성취감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제에 몰두하기 어렵다.

셋째, 자신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며,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공에 대한 기대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방해되는 상황을 오랫동안 견디도록 한다. 자신감은 성취감에 의하며, 수행의 성취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게 된다. 자신감은 개인이 지닌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Bandura, 1982). 즉, 자신감은 능력에 대한 평가이므로 자신감을 강화하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동기부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의 교류적 측면을 다루고자 하는 유대감 차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예컨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왕따상황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되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감은 일차적인 단계가 되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강화하게 되고, 자신을 지지해줄 타인이 있다는 인식을 함으로써 지지감이 대인 교류적 측면에 관련한다고 보았다.

Baumeister와 Leary(1995)의 소속감 가설을 통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욕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은 정서적 적응, 생활만족,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 하였다(Reid 등, 1980). 즉, 안정된 대인관계가 적응에 도움을 주어 건강과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이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Cowen, Pederson, Babigian, Izzo, & Trost, 1973; Hartup, 1983).

다섯째, 친밀감은 대인관계의 질을 의미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 상호교류하는 빈도나 횟수보다는 자기를 개방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관계를 형성할 때 소극적인 관계보다는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 관계의 망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원하는 타인들을 두게 되고,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적절성을 확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은 대인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다룰 수 있다는 능력감이 상승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기여하게 된다(Shumaker & Brownell, 1984).

여섯째, 지지감은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경청해주는 정서적 지원에 대해 만족할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증진된다(Turner, 1981). 실제 심리적복지감을 지각하는 변인들을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관계의 양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Caplan, 1974). 즉, 사회적 지원의 양은 심리적 안녕과 관계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평가가 심리적 복지감에 더욱 설명력 있는 변인이라는 점이다.

Kleckler(1993)은 지지제공자가 제공한 만큼 지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식측면과 관련하므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실제 그 도움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지감이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느냐보다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욱 영향을 미친다(Wethington & Kessler, 1986).

마지막으로 향상감차원은 개인이 현 상태를 편안하다고 인식하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욕구를 통해 앞으로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향상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일곱째, 안정감은 부정적 정서가 없는 상태로서 현재를 편안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고독감이나 우울, 소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함으로써 현재 상태에 몰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표와 일체가 되어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통해 시간과 공간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행위자체에 몰두함으로써 심리적 복지감을 갖게 된다(Csikzentmihalyi, 1990).

여덟째, 의욕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역경에 대해 강력한 지속력을 갖는다(Ralph, 1951). 즉,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므로, 그 결과 생산적인 개인을 만든다(Yoder, 1970). 만족이 현재와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데 반해, 의욕은 보다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의욕감은 적극성과 도전여부를 결정짓게 하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향해 동기가 부여된 만족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욕감이 높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목표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확신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목표를 향해 지속성을 가지므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아홉째, 기대감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어려운 일이나 좌절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삶은 궁극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다. 기대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형성된다. 기대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신념으로, 기대의 불일치는 불만족과 관련하며 기대 일치는 만족과 관련한다. 그러므로 기대감은 개인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목표를 실행하는데 힘이 되며, 역경과 고통에 대처하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된다(Tiger, 1979).

또한, 결과를 획득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포기하므로, 기대감은 결과에 대한 행동적 측면 뿐 아니라 자부심, 자신감 등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하게 된다(Scheier 등, 1986).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기대를 갖고 목표를 이루려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경우, 만족하게 되지만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목표를 이루려는 경우, 우울과 불안, 근심으로 불만족한 정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시각은 사건을 재해석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은 문제를 회피하고 무시하게 한다(Holahan & Moos, 1990; 1991).

이와 같이 통제감, 성취감, 자신감, 수용감, 친밀감, 지지감, 안정감, 의욕감, 기대감의 9개 영역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평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어머니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자로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활의 변화를 가정생활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자녀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해 측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동양육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라는 전제와 어머니의 일차적 만족이 가정생활의 만족정도라는 점을 전제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통해 복지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심리적복지척도의 개발을 통해 본 연구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문항들은 타당하게 선별되었는가?

(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3)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부산, 제주지역의 시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무선 표집하여 재학 중인 어머니 369명 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352명을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1~35세(53.2%)로 고졸(37.4%), 대졸(33.4%), 초대졸(24.3%)의 전업주부(59.2%)로 남편의 연령은 36~40세(50.2%)가 주를 이루는 3인가족(53.7%)과 4인가족(19.6%)으로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며(77.1%), 남아(56.1%)1인, 또는 여아1인(48.2%)의 6-7세 아동(56.1%)의 자녀를 둔 이혼경험과(94.8%) 재혼경험(98.2%)이 없는 5~10년 미만의 결혼생활을 하는 150~300만원 미만(51.2%)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

1) 문헌 연구 및 문항제작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4년 3월~5월까지 유아기 어머니의 심리적복지감과 관련한 요인들을 고찰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아동발달 및 심리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9개영역으로 각 14문항씩 구성된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척도구성은 4품등 Likart척도로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로 하였다.

2) 예비조사와 본 조사

예비조사를 위해 1개 기관의 2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집단 3명과 문항을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는 2004년 4월 10일~4월 20일까지 유치원 2학급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5월 6일~5월 25일까지 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장이 부모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아동 편으로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어머니가 응답하고 교사를 통해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 10.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9개영역으로 제시된 문항을 척도로 구성하기 위해 요인수를 9로 정해두고 주성분 분석에 의해 직접 오블리민 방법으로 회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Franklin(1996)의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와 Ryff & Keyes(1995)의 Psychological Well-Being의 상관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를 적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책임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KMO측도를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84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ttlett의 구성형 검정치는 23093.74이고 유의 수준이 .000이므로, 유아기어머니의 심리적복지 감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문항들은

〈표 1〉 요인분석 결과

변 호	성 분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I10	.750				-.335					.597
I12	.742									.563
I4	.741				-.387					.612
I11	.713				-.401					.573
I13	.712									.550
I8	.707									.523
I5	.702				-.335					.528
I6	.692				-.330					.541
I3	.650				-.306	-.320				.508
I9	.634				-.379					.500
I7	.607				-.474		.337			.529
I2	.571				-.468		.309		-.314	.494
I14	.546									.324
I1	.521				-.455		.355			.449
D7		.671								.480
D9		.661					-.326			.476
D12		.661								.476
D10		.646								.458
D8		.638								.461
D14		.637					-.340			.468
D11		.615								.435
D6		.610								.410
D2		.573					-.483			.470
D13		.551								.373
D4		.536					-.312			.328
D3		.506					-.436			.378
D1		.481					-.328			.315
D5		.477								.308
A4			.695							.499
A6			.686							.502
A5			.664							.471
A7			.664							.464
A12			.662							.453
A8			.595							.451
A3			.589		-.323					.454
A14			.572							.386
A9			.562							.377
A2			.560							.343

<표 1> 계속

번 호	성 분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A10			.555							.347
A1			.449							.309
C1				.701						.517
B11				.651						.438
B10				.630						.425
B14		.300		.628						.452
B1				.623						.408
C5				.621						.424
B12				.576						.395
B8				.561					-.405	.429
B13	.319			.561					-.318	.425
C13				.538						.376
B2				.536						.356
C11				.452					-.369	.315
C10				.436						.279
C7				.405						.279
H4					-.839					.714
H3					-.826					.696
H10	.377				-.793					.680
H2	.316				-.787					.638
H11	.402				-.778					.644
H7	.319				-.775					.639
H1					-.755					.580
H9	.409				-.734					.602
H5	.345				-.733					.575
H6	.301				-.717					.536
H12	.378				-.715					.589
H13	.401				-.521	-.302				.406
F7		.331				-.749				.617
F11						-.749				.580
F14						-.740				.591
F13						-.736				.605
F9						-.711				.524
F12						-.660		.321		.532
F8						-.651			-.330	.467
F6		.312				-.632				.475
F1		.389				-.571				.391
F4		.356				-.554				.383
F10		.360				-.532		.310		.400
F3		.411				-.505				

타당하게 선별 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 수 9를 지정해 두고 비 직각 회전방식 중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여 9개 요인을 선별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2〉 심리적복지감 총점과 요인별 점수와의 상관관계

	총 점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7요인	8요인
1요인(기대감)	.737***	1.000							
2요인(수용감)	.626***	.306***	1.000						
3요인(통제감)	.536***	.286***	.268***	1.000					
4요인(자신감)	.705***	.414***	.404***	.256***	1.000				
5요인(의욕감)	.677***	.563***	.253***	.307***	.383***	1.000			
6요인(지지감)	.667***	.393***	.541***	.253***	.358***	.301***	1.000		
7요인(친밀감)	.560***	.380***	.243***	.184***	.289***	.295***	.313***	1.000	
8요인(안정감)	.540***	.283***	.371***	.146***	.414***	.300***	.293***	.272***	1.000
9요인(만족감)	.651***	.389***	.339***	.246***	.512***	.300***	.432***	.390***	.287***

* $p < .05$ ** $p < .01$ *** $p < .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복지감을 구성하는 요인의 각 영역과 총점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 $r = .54 \sim .73$ 로 나타났다($p < .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요인의 전체변량은 46.0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은 ‘기대감’, 2요인은 ‘수용감’, 3요인은 ‘통제감’, 4요인은 ‘자신감’, 5요인은 ‘의욕감’, 6요인은 ‘지지감’, 7요인은 ‘안정감’, 8요인은 ‘친밀감’, 9요인은 ‘만족감’이라 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2. 상관분석

유아기 어머니의 심리적복지감의 구인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해 9개요인 점수와 총점간의 Person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1요인(기대감)은 $r = .74(p = .000)$, 2요인(수용감)은 $r = .63(p = .000)$, 3요인(통제감)은 $r = .54(p = .000)$, 4요인(자신감)은 $r = .71(p = .000)$, 5요인(의욕감)은 $r = .68(p = .000)$, 6요인(지지감)은 $r = .67(p = .000)$, 7요인(안정감)은 $r = .56(p = .000)$, 8요인(친밀감)은 $r = .54(p = .000)$, 9요인(만족감)은 $r = .65(p = .000)$ 로 나타났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2>과 같다.

3. 문항 내적합치도본 연구의 문항내적 합치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9개 요인의 영역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영역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영역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sim .91$ 로 나타났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본 연구의 문항내적합치도

구 분	문항수	요 인 명	문항수	Cronbach's α 계수
본 연구	102	1요인(기대감)	14	.908
		2요인(수용감)	14	.865
		3요인(통제감)	12	.848
		4요인(자신감)	14	.857
		5요인(의욕감)	12	.932
		6요인(지지감)	13	.886
		7요인(안정감)	9	.770
		8요인(친밀감)	6	.710
		9요인(만족감)	8	.796

4. 공인타당도

본 척도는 Franklin(1996)의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와 Ryff & Keyes(1995)의 Psychological Well-Being을 사용하여 공인타당도를 측정하였

다. Franklin(1996)의 척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양극단으로 하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며, Ryff & Keyes(1995)의 척도는 '자기 수용감',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환경적 통제감', '자율성'의 6개 영역으로

〈표 4〉 Ryff & Keyes(1995)의 심리적복지감 척도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내용	성분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공통성
K6	내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내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	.902						.826
K7	나는 친밀한 친구관계를 갖고있지 못한 것 같다.	.902						.831
K10	나는 타인으로부터 따뜻함과 신뢰로운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다.	.878						.777
K3	나의 관심을 함께 할 친구들이 없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	.849						.729
K13	나는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847						.723
K11	나는 종종친구가 되었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	-.785						.723
K2	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사적인 대화를 즐긴다.	.758						.587
L13	내가 살면서 성취한 것들을 생각하면 만족감이 든다.		.727					.549
L11	나는 생활하다보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될 것 같다.		.724					.550
L9	나는 내 자신이 세운 계획을 수행하는데 능동적인 사람이다.		.701		.367			.564
L12	내 삶의 목적은 좌절보다 만족에 가깝다.		.684					.491
L1	과거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673			.306		.568
L10	어떤 사람들은 목적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런사람이 아니다.		.623					.440
O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653				.487
O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649				.429
O6	나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639				.487
O10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들은 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613				.398
O11	내 친구나 가족들이 반대하면 나는 생각을 바꾸는 편이다.			.610				.447
M3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317		.785			.658
M5	나는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35			.582
M2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싶다.				.702			.520
M7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인 것 같다.				.549			.334
N8	나는 매일 해야만 하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810		.684
N2	매일의 해야만 하는 일들은 나를 지치게 한다.					-.797		.654
N5	내가 책임져야하는 일들이 나를 짓누른다.	.346				-.740		.586
N13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50				-.578		.466
J12	과거에는 기복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676	.482
J4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자신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						.548	.460
J14	모든 사람들은 약점이 있지만 나보다 더 약점이 많은 것 같다.						.475	.282
	고 유 값	5.63	3.92	2.20	1.68	1.58	1.22	
	설명변량 백분률	19.40	13.50	7.58	5.79	5.45	4.20	
	누적변량 백분률	19.40	32.90	40.48	46.27	51.72	55.91	
	회전제곱 전체	5.50	3.25	2.41	2.47	2.74	1.29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구성된 84문항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6요인 29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4>과 같다.

참고로, 본 연구의 외적준거로 제시된 Franklin(1996)의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622이었으며, Ryff & Keyes(1995)의 Cronbach's α 계수는 .686이었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본 연구와 Ryff & Keyes(1995), Franklin(1996) 척도의 상관결과

	본 연구	Ryff & Keyes(1995)
본 연구	1.00	
Ryff & Keyes(1995)	.252***	1.00
Franklin(1996)	.214***	.376***

* $p < .05$ ** $p < .01$ *** $p < .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Ryff & Keyes(1995)의 척도와 본 연구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간의 상관이 $r = .252(p = .000)$ 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와 Franklin(1996)의 심리적복지감 척도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214(p = .000)$ 로 나타났다. 그리고 Franklin(1996)과 Ryff & Keyes(1995)의 척도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376(p = .000)$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심리적복지감과 양육책임감의 집단별 차이

심리적복지감 척도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책임감 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양육책임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측정을 위해 Gilger 와 Hansosn(1983)의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PPRS)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책임감 척도는 총 13영역의 8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용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9개영역 43문항을 선별하였다.

각 영역을 설명하면,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다루는 것 6문항(Cronbach's $\alpha = .93$), 자녀의 신체적 발달을 돕는 것 6문항 (Cronbach's $\alpha = .86$), 자녀에게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을 심어주는 일 5문항(Cronbach's $\alpha = .87$), 자녀의 위생상태를 돌봐주는일 5문항(Cronbach's $\alpha = .90$), 자녀에게 생존능력을 길러주는일 4문항 (Cronbach's $\alpha = .80$),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것 4문항(Cronbach's $\alpha = .85$), 자녀의 인지발달을 돕는것 5문항 (Cronbach's $\alpha = .80$), 규범을 가르치고 사회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4문항(Cronbach's $\alpha = .81$),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일 4문항(Cronbach's $\alpha = .76$)으로 4품등 Likart척도로 제시하였다.

전체 43문항의 점수범위는 43점~172점까지 이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결과, 양육책임감 척도의 점수범위는 78점~153점으로 나타났다. 4 품등 척도의 중립점을 잠정적으로 2.5점이 라고 할 때 107.5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동일 비율을 비교하고자 126~153점까지를 양육책임감이 높은 집단이라 하고(상위 19.2%)과 78~107점까지를 양육책임감이 낮은 집단(하위20.7%)이라 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책임감에 대한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한 결과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 양육책임감이 높은 집단이 심리적복지감 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로 양육책임감을 비교한 결과, 기대감($t = -2.223$), 자신감($t = -2.483$), 의욕감($t = -5.280$), 지지감($t = -2.016$), 안정감($t =$

〈표 6〉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책임감의 집단간 차이

	어머니의 양육책임감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도
기 대 감	낮은집단	66	41.8939	5.0843	-2.223	.028
	높은집단	67	43.9403	5.5265		
수 용 감	낮은집단	67	36.5373	4.1353	-.995	.321
	높은집단	67	37.2687	4.3679		
통 제 감	낮은집단	67	37.0896	4.4270	-.395	.693
	높은집단	67	37.4030	4.7516		
자 신 감	낮은집단	67	37.8507	4.2720	-2.483	.014
	높은집단	66	39.9394	5.3748		
의 욕 감	낮은집단	67	37.5672	4.3107	-5.280	.000
	높은집단	67	41.6269	4.5853		
지 지 감	낮은집단	67	37.1343	4.3759	-2.016	.046
	높은집단	67	38.6716	4.4497		
친 밀 감	낮은집단	67	25.5373	3.6653	-.506	.614
	높은집단	67	25.8657	3.8411		
안 정 감	낮은집단	67	15.4328	1.9402	-2.146	.034
	높은집단	67	16.3134	2.7425		
만 족 감	낮은집단	67	22.5821	2.7697	-2.713	.008
	높은집단	67	23.8657	2.7074		
심리적복지감	낮은집단	66	291.9091	23.7213	-3.237	.002
	높은집단	66	305.5303	24.6172		

-2.146), 만족감($t=-2.713$) 영역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p<.05$), 수용감($t=-.995$), 친밀감($t=-.506$), 통제감($t=-.395$) 영역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IV. 논의 및 결론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맞벌이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육아를 스트레스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연구해온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심리적복지감과 관련하는지 적용을 시도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평가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9개 영역 중 성취감과 자신감 영역이 동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은 지금까지의 일에 대한 성공경험이나 성취경험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자신감은 그 결과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지각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요인분석과정에서는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두 영역을 합하여 '자신감' 영역이라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영역 외에 '성취감' 영역의 5문항과 '지지감' 영역의 1문항과 '안정감' 영역의 2문항이 새로운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내용들은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증

도와 관련한 내용이었으므로 새로운 영역을 '만족감' 영역이라 하였다. 따라서, 제시한 9개 영역은 '성취감' 영역대신 '만족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외적 준거로 Franklin(1995) 척도와 Ryff & Keyes(1996)의 평가척도와 공인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두 척도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622~.686으로 나타났다. 상관검증결과 유의수준 $p=.000$ 수준에서 Pearson 상관계수 $r=.214 \sim .252$ 로 나타났다. 외적준거로 제시된 Ryff & Keyes(1996)의 척도는 요인분석과정에서 수정이 요구됨을 보았으며, 제시된 척도는 모두 중앙치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4품등 Likart 척도로 제시되었다. 일반화된 측정도구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므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으나, 타당화 작업이 추후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육책임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집단 간 차이를 심리적복지감과 비교한 결과, 수용감, 친밀감, 통제감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제시된 양육책임감 척도는 총43문항의 4품등척도이므로 전체 점수범위는 43점~172점까지이며 중립점은 107.5점이 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점수범위는 78~153점이었다. 즉, 부모의 양육책임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비교라기보다는 보통의 집단의 상·하위 비교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추후 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심리적복지감 척도개발을 위해 심리적복지감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요인분석을 통해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9개 요인을 제시하였으나, 이외에도 여러 차

원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를 통해 심리적복지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활용성 있는 타당한 도구로 개발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문항개발과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통한 적용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김명자·박성연(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97-118.
- 김진숙(2003). 모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품행장애와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성(2004).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사회 복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상지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랑(2003). 자녀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원·이소희 (2002).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23(4), 227-248.
- Adler, S.(1980). Self-Esteem and Causal Attribution for Job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27-332.
- Andrew,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Press.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a). Motivation Theory in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M. D. Dunnett(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63-130). Chicago : Rand McNally Co.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b).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Caplan, G.(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 Trost, M. A.(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438-446.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uphy, J. J.(1977). The Research Edition of the General Psychological Well-being Schedule. Unpublish manuscript.
- Elliot, A. J., & Sheldon. K. M.(1997).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 A Person Goal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71-185.
- Emmons, R. A.(1996). Striving and Feeling :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Gollwitzer, P., & Bargh., J.. *The Psychology of Action : Linking and motivation to behavior*, 313-337. New York : Guilford Press.
- Emmons, R. A., & Diener, E.(1983).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Illionis at champaign-Urbana.
- Emmons, R. A., & Diener, E.(1986b).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o-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11-215.
- Emmons, R. A., & Diener. E.(1985). Factors Predicting Satisfaction Judgement : A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157-159.
- Emmpns, R. A., & Diener, E.(1985a).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89-97.
- Franklin, A., J.(1996). 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Blacks. In R. L. Jones(Ed). *Handbook of Tests and Measurements for Black Populations*. Vol. 2, Hampton, VA : Cobb and Henry Publishers.
- Hartup. W. W.(1983). Social Relation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s,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Holahan, C., & Moos, R. H.(1990). Life stressors, resistance factors, and psychological health : An extension of the stress-resistance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09-917.
- Holahan, C., & Moos, R. H.(1991). Life stressor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 A 4-year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38.
- Ipsen, D.(1978). *Das Konstrukt Zufriedenheit*. *Soziale Welt*, 29, 1, 44-53.
- Larson, R.(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Lawton, M.(1972).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4-59.

- Lefcourt, H. M.(1976). Locus of Control : Current Trend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 Erlbarm.
- Marks, S. R.(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 921-936.
- McLanahan, S., & Adams, J.(1989). The Effects of Children on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1957-1976. *Social Forces*. September, 68(1), 124-146.
- Myers, D.,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Ralph. C. D.(1951). *The Fundament of Top Management*. New York : Harper & Row.
- Reid, D. W., & Ziegler, M.(1980). Validity and Stability of a New Desired Control Measure Pertaining to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5, 395-402.
- Ryff, C.(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 Keyes, C.(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arason, I. G., Sarson, B. R., & Sherin, E. N.(1986). Social Support As an Individual Differance Variable : Its Stability, Origins, & Relationship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0(4), 845-855.
- Scheier, M. F., Wintraub. J. K., & Carver. C. S.(1986). Coping With Stress :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Shumaker, S. A., & Brownell, A.(1984). Toward A Theory of Social Support; Closing Conceptual Gap.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11-36.
- Tiger, L.(1979). Optimism : The biology of hope. New York : Simon & Schuster.
- Tubb, M. E.(1993). Commitment as a Moderator of the Goal-Performance Relation : A Case for Cleater Construct Defini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86-97.
- Turner, R. J.(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ethington .E., & Kessler, R. C.(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27, 78-89.
- Yoder, D.(1970). *Personnel Manag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New York : Pretice-Hill.

2004년 6월 31일 투고 : 2004년 8월 20일 채택